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1월

2013년 1월 통합 245호

발행인 : 광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나의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 p2
- 기획글 |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p3
- 회원탐방 | 노귀전 회원을 만나다 p4
- 활동사진 p7
- 책 이야기 |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 p9
- 영화소모임 | '레 미제라블'을 보고... p12
- K의 교단 일기 | 그와 약속한 날 p14
- 회원 글 | 카툰이야기 p16
- 보도자료 p19
- 논평 p20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22
- 학부모알림란 p24
- 지부일정 p26
- 12월 회비 보고 p27



▲ 노귀전 회원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 체 게바라 -

나의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는 참 많은 것이다.
인류가 시작되고 수많은 현자들이 있어왔지 않은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경험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 한마디는 나오고 있을 것이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생인가? 인류역사가, 사람이, 삶의 선생인가?

체 게바라의 저 말을 처음 대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부했다.
꿈이니 희망이니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별 의미도, 기대도 부여하고 있지 않을 때였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들 삶.
꿈이니 희망이니 하는 말들은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진 것들을 내놓을 때만이
꿈이니 희망이니 하는 말들이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라는 말들은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우매한 민중을 다스리는 술책.
그리고 체 게바라가 조금은 몽상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한가.
체 게바라의 이미지까지 팔아먹는 시대지만
그는 여전한 시대의, 혁명의 아이콘이다.
마지막까지 게릴라로, 혁명가로, 실천가로 살지 않았는가.
그의 꿈에 대한 해석. 한참을 지나야 저 말이 이해가 되었다.
인간은 꿈꾸는 존재라는 것을. 꿈을 꾸야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거가 끝나고 한동안 슬프고 멍했다. 또 5년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꿈을 꾸어야겠다. 5년 동안 착실하게.
현실 속에서 출발하는 꿈을.
인간은 꿈을 통해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알립니다.

이 번 달부터 여는 글은 ‘나의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혹은 냉철하게 해 준 한마디를 보내주세요



곽 선 희 (지부장)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학 부산지부 회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고 보람되고 가슴 벅찬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학 텃밭을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회원들과의 아름다운 나눔,

가족회원 만남의 날을 통해서 함께 했던 교육에 대한 열정들,

고문님과 새내기 회원들이 모여서 늦은 밤까지 우리 교육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토론 등...

회원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회원들의 가입으로 참학 사무실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산지부를 지켜주신 회원들의 밑받침과 새내기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내년 부산지부에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2013년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여건상 어느 해 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임원 여러분과 회원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교육 실현과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부장으로써 임무를 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이지만

현재의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보태주시어

그 힘이 모여 참학 부산지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주 뵈지 못했던 회원들의 얼굴을 자주 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아침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선된 임원은 부지부장- 이규남, 김옥랑/ 사무국장- 편국자/ 감사- 박무준, 배선임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 탐방에 함께한 노귀전, 곽선희, 김성미, 정봉애



● ●

노귀전 회원들을 만나다

올해 마지막 달의 회원 탐방 주인공은 카톡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295회째 보내주시고 계신 노귀전 회원이다. 십 년전부터 시작한 독서와 토론, 글쓰기 모임의 송년회 날에 맞춰 그 회원들과 함께 노귀전 회원을 만났다. 글쓰기 회원이신 정봉애, 김성미, 김옥랑씨가 함께 자리했다. (이 날 정봉애씨는 회원가입을 했다)

Q.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보내시게 된 동기는?

A. 처음 어떤 분에게서 좋은 글을 받고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쯤 글을 보내다 그만 두었어요. 그 후로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현재 295회째 글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습관 만들기로 시작했는데 웃음치료사 모임에 있는 분들, 암투병하시는 분들, 불교대학에 계신 분들이 받아 보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글귀를 찾아서 축약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히 넣어서 보내는데 사백여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내가 보내는 작은 글이 누군가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면서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분도 있고 밥을 사 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뻐하고 그걸 표현해 주시면 그게 제게는 또 큰 기쁨이 됩니다.

Q.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가족은?

A. 초등학교 방과 후 독서 논술과 뉴스킨이라는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고3, 중3 두 딸을 두고 있어요.

Q. 자녀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A.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부모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PET교육, MBTI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했지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키우려고 했어요.

특히 큰아이 사춘기 때 주고받는 일기장을 통해서 서로간이 갈등을 지혜롭게 넘겼어요.

아이들이 고민이나 불만을 털어놓을 때 그것들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또 하나 제가 꼭 지켰던 것은 자기 전에는 기분 나쁜 상태에서 잠들게 하지 말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잠들기 전에서 머리맡에서 앉아서 마음을 풀고 '사랑한다. 네가 내 딸이어서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고 뽀뽀해주고 잠들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가족 간에 또 자매간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기초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엄마들에게 PET교육을 권장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큰 아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찾아 나갔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와칭', '시크릿', '김수영', '한비야'의 책 등을 권해주면서 딸에게 책을 통해서 너의 삶을 계획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저는 책속에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Q. 지난번에 가족 모두 함께 여행가신다고 들었어요?

A. 예. 온가족이 함께 북경에 다녀왔어요.

우리가족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영남알프스를 사계절 다 보여 주었지요. 철마다 산을 다니면서 봄의 모습, 여름, 가을, 겨울 산의 상고대도 보았고요.

어릴 때 몇 년 동안 산을 함께 다녔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가족이 함께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말로 글로 설명하기보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 생각했고 그걸 그대로 실천한 것이지요. 남편도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교육관이나 철학이 서로 다르지 않아 함께 어떤 일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지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척 기쁜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딸들이 집안에서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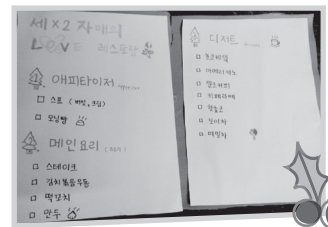
전날 장을 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볶음우동, 꽃꽂이, 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렸어요.

메뉴판을 마련해 놓고 주문을 받아서 음식들을 요리해 주었지요. 한 가지 음식을 먹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두 딸 덕분에 너무 기쁘고 고마웠어요.

3년 전 결혼기념일에도 엄마, 아빠의 모습과 어린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 스크랩을 해서 보여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기뻐했지요.

저는 두 딸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주어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 노귀전씨 딸들의 상차림 ●



Q. 불교대학을 다니신다고요?

A. 예. 삼광사 불교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불교대학에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함께 해결해가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표시나지 않게 움직여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불교대학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내가 남에게 조금만 베풀면 더 많은 것이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

게 되었지요.

법전을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제겐 더 큰 공부였습니다.

Q. 지금까지 참학을 보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A. 참학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옥랑 선생님이 참학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함께 했으면 하고 권유를 했어요. 저는 김옥랑 선생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친구 두 명과 함께 가입을 했지요.

그리고 텃밭에서 회원남의 날을 한다가에 가 보았는데 그때 느낌이 참 좋았어요.

한편으로 막연하게 강한 성향의 사람들일 것이라 여겼는데 자연 속에서 토마토,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각각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무엇보다 지부장, 실장님 등 회원의 남편 분들이 아내를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부부가 서로 함께 하는 신뢰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어요.

총회 때도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펼쳐놓고 나눠먹는 것을 보고 남들을 위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구나 하고 감동했습니다.

Q. 참학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A. 방과후 논술교실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교육청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복지가 골고루 필요한곳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중복되게 지원되고 있고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교과부 예산, 부산시 교육예산, 교육청 예산 등 교육 복지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Q. 김성미 선생님이 보신 노귀전 선생님의 모습은?

A. 김성미 : 내가 십년 동안 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되기도 하는데 제게 지금까지 지켜본 모습은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요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분입니다.

Q. 정봉애 선생님이 보신 노귀전 선생님의 모습은?

A. 정봉애 : 매사가 원론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보석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버같은 분이죠. 크게 멋을 부리지 않아도 은은한 자태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Q. 김옥랑 선생님이 보신 노귀전 선생님의 모습은?

A. 김옥랑 : 삶을 밀도 있게 사시는 분, 항상 부지런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꽉 채우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참학부모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아이를 존중해주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게끔 도와주고 아이를 참 편하게 키우는 부모예요.

이미 참교육을 몸소 실천하시고 계신 노귀전 회원을 만나면서 좀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참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우리회와 함께 활동하면서 자주 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통해 좋은 글 많이 보내주세요.

<정리 : 궤선희>

2012년 총회 모습들



▲ 감사보고 하시는 심미숙



▲ 사회자 최은화, 지부장 곽선희



▲ 우수활동가상을 받은 장유성, 이규남, 김정숙



▲ 최진경, 최지선 회원

활동 사진



▲ 무상급식실현 1인 시위



▲ 투표독려

▼ 대선공부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

— 서경식 저 / 창비 출판 —

신 광 호

01

뿌리모 레비는 1919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는 2차대전 반파시즘 저항 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 이송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아 아우슈비츠의 폭력, 인간이 인간에 대한 폭력을 증언해야한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이것이 인간인가' 외에 여러 책을 쓰고 열심히 강연을 다녔다. 화학자이며 문학인으로 살아가던 이탈리아사람이 국가 폭력을 옹호하던 사람들의 광기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삶을 긍정하던 조용한 낙관주의자였던 그가 1987년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서경식은 재일 조선인 2세. 1951년 일본 교토출생, 인권 운동가 서승과 서준식의 동생. 두 형은 방북으로 인해 '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어 20여년 옥고를 치렀고 서경식은 형들의 석방과 한국 민주화를 위해 장기적인 구호 활동을 벌이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전쟁과 국가 폭력을 응시하며 우리시대 진실을 증언하는 문필가가 된다.

뿌리모 레비의 죽음을 한나 아렌트는 자기본위의 죽음이라 정의를 내렸지만 서경식은 쉽게 그의 죽음을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낙관주의자 뿌리모 레비가 자살한 이유가 무엇일까? 소통의 단절이 힘들어서인가? 인간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서? 무관심과 냉대가 더 이상 인내하기가 힘들어서? 수용소 바깥이라 생각했던 곳이 수용소 안과 밖 서로 다름이 없다는 허무감에서? 서경식은 자살의 동기가 궁금해 그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은 이탈리아로 떠난다. (서경식 역시 뿌리모 레비처럼 디아스포라의 모진 운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다.) 이 책은 기행문 형식의 에세이다.



02

토리노행 열차를 타고 누오바 역에 내려 호텔에 머물고 레비의 묘지에 이르기까지 차분하고 진솔하게 뿌리모 레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 왜 레비는 불길한 조짐을 느끼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한다. '유대인이라 해도 이탈리아 국민으로 줄곧 살아왔으므로 이태리 정부가 이태리 국민을 보호해줄 것이다. 유대인이라 해서 외국으로 도주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나 국가가 힘을 가지려면 민족을 앞세운 단일한 정체성-파시즘-으로 무장해야하는데 이때 순식간에 이태리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국제적 벌레로 매도된다. 사람이 벌레가 되는 건 한순간의 일이다. 다수의 합의에 의해 유대족과 집시족은 개보다 못한 벌레로 취급한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그냥 기이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다. 현실 그 자체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도와 유대인의 통혼이나 성교를 금지하는 최초의 반유대 정책이 채택되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크게 유행했을 때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유럽 각지에서 대학살이 전개되었다.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시선은 아직도 기독교 사회가 유대교도에게 가지고 있는 뿌리 깊

은 편견이다. 국가권력이 강대해질수록 박해받는 이민족들이 많이 생긴다.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집단 살해당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 세계 방방곡곡에 숏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1953년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 끝에 서독 정부는 유대인 살해에 독일 국민이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그 해에 제정된 연방보상법은 육체 재산 자유 상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는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었다.

아우슈비츠는 그 때 그 사건으로 끝이 난걸까? 어떤 사람은 그에 비견할만한 역사적 사건이 전후무후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저자는 1975년 사회안전법이라는 법률의 공포로 인해 형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을 잠시 얘기한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개가 걷힌 오후 꽃을 사들고 뿌리모 레비의 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담하게 펼친다.

146쪽에는 뿌리모 레비의 묘비 사진이 실려 있다. 거기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PRIMO LEVI
174517
1919-1987

딱 세줄.....

여섯 개의 숫자는 저자가 한참 지나서 깨달았다고 실토했다. (그건 왼쪽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진 아우슈비츠 수인 번호——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죄인이 되었다.)

책 후반부에는 인간에 대한 성찰 특히 뿌리모 레비 스스로가 스스로의 증인 자격에 대해 묻는다.

첫 번째 증인 자격으로서의 회의는 스스로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 레비는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 “자신이 인간인 것에 죄가 있다고 느낀다”고 썼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를 만든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저지른 죄 앞에서 치욕감을 느낀다. 가해자는 그 치욕을 알 수 가 없다. 죄 없는 약자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계속 죄를 의식하면서 살고 죄 지은 강자는 법과 가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벌 주는것은 익숙하면서도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처벌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죄의식이 없다. 그걸 강자의 정의라고 믿는다.

독일의 일반 국민들은 아우슈비츠의 만행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국익을 위해서 타민족 타국가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라고 믿었고 국가 테러의 세세한 실상을 알면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로 안주하려 했다. 나찌즘에 동의한 죄를 벗어나려고 무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는 환상을 만들어 내었다. 뿌리모 레비는 “이렇게 깊이 고려된 의도적인 태만이야말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두 번째 증인 자격 회의는 아우슈비츠 생존자들 중에 그 고통들을 잊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지만 레비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 기억하면서 그걸 증언해야하는 게 인간의 의무라고 믿었다. 그래서 “판사이기보다는 증인이고 싶다”고 말해 왔는데 문제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고 했다고 믿기도 어려운 폭력, 다시 말해 뿌리모 레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전달 가능한 것인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증언할 자격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회의이다. 이와 반대로 끝까지 회의 없이 확실한 자기 삶을 살은 사람도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량학살을 주도했다가 모사드에 체포되어 전범 재판을 받은 독일 장교 아이히만은 “군대에서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지킨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따지고 벌을 주려고 하느냐?” 반문하며 사형당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 갔다. 아이히만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03

프랑스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뮈는 인간만이 자살할 수 있다. 인간의 철학적 문제는 자살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규정하는 실존적 문제로서의 자살은 과연 얼마나 될까? 철학자 들뢰즈의 자살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질병사이고 뿌리모 레비 역시 소통단절의 허무감 또는 증인 자격포기로 인해 죽음을 결행했다고 해도 역시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 중고교생들이 성적 비관해서 죽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노숙자 도시빈민 빚 독촉 견디지 못해 자살은 그가 무능해서? 노조 간부가 고공 크레인에 매달려 자살하는 것도 그가 과격해서? 개인적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이나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복구의 레밍즈라는 들쥐가 절벽에서 무리 지어 떨어지는 것을 자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 투사에 불과하듯이 인간의 자살이라는 코드는 사회 구조적 코드 자연과학적 코드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벽에 밀려 떨어지는 것이다. 호주의 젊은 이들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다 홀연히 떨어져 죽는데 아무런 죽음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이걸 개인적 사건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죽음을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자살’이라고 묶어서 얘기해야할 정도로 일반적이고 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사라해야 한다. 그런 경우 베르테르 권총 자살처럼 개인적 사고이지만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은 시나리오 작가와 밀양 송전탑에 매달려 죽는 노인 모두 사회적 사건이고 대부분의 자살은 사회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대부분의 사회적 죽음을 개인적 자살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 벼랑 끝에 몰려 몸을 던지는 사람과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는 사람은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자살은 다 사회적 원인인데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종교와 국가의 도덕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일종의 데마고기다.

개인적 자살조차 그걸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더구나 사회적 이슈를 뚜렷이 내건 사회적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시위 현장에서의 죽음을 비난하며 모 시인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운운하는 것은 그 시위의 이슈에 대한 냉대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소중한 사회적 생명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사회적 사건들의 결합으로 유지 된다. 생명 경시 운운하는 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애써 외면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회적 특권을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뿌리모 레비의 죽음은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현 시대의 어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하는 사회적 사건인 것이다. 집단 무의식 속에 안주하며 어둠을 외면하는 곳에 자유와 진실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여러 중첩된 어둠을 보는 것이지 허위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허위를 직시하는 것이다. 아는 만큼 꿈꿀 수 있고 꿈의 크기가 자유와 행복의 크기이다.

04

추천할 책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맨 먼저 떠올린 책이 이 책이다.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로 2002년 마르코폴로상을 받았다. 이 작고 얇은 책속의 수많은 진중한 물음과 만나면서 나의 존재 깊은 곳까지 회의하고 사색할 수 있었다. 그 물음은 초고압의 전류처럼 다가왔고 그 감전의 고통이 오래 갔다. 그러나 아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피하면 평생 불행하며 더 큰 고통에 시달릴게 분명하다. 이 책에 문제 극복에 대한 해답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대답보다는 질문이 더 진실을 요약해준다. 흑백 모범답안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 친지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했던 책이다.) 2013년 서두부터 너무 어두운 얘기라고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둠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나지 않던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올해부터 책이야기는 철학자인신 신광호 선생님의 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정화 회원의 남편이시고 오랜기간 독서모임을 이끌고 계시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아픔을 철학을 통해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책들을 소개 해 주실 계획입니다. 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레 미제라블'을 보고...

글 : 백미영

보고나서 대작이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하도 오랜만에 이런 대작을 봐서인가? 조금 나에겐 익숙하지 않는 대작이라는 영화였다.
수많은 관객을 모으고 호평 또한 이어지고 있지만 난 어느새 익숙하지 않은 게 돼버렸는지 대작 한편 잘 봤다는 느낌이다.
물론 재미있고 잘 만들었다. 스토리에, 영화에 충실한 영화였다. 단지 내가 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부끄럽지만 난 어릴 때 본 은춍대 이야기의 장발장만 기억하고 있었으니... 뮤지컬을 본 적도 없고 이전에 만들어졌던 영화도 본적 없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인지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되면서 감동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혁명의 성공과 실패, 계속되는 왕정, 불쌍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고통스런 가난한 삶, 그 속에서의 사랑과 혁명과 용서...

장발장과 자베르, 어른들을 통해서는 사랑과 용서,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통해서는 청춘의 사랑과 혁명을 느낄 수 있었다.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장발장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원칙을 고수하며 죽을 때까지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의 용서 앞에 자살로 무너지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첫 화면부터 헉! 하며 완전 대작이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오면서 잘 봤는데 마지막에는 두 번 정도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난 배우들의 노래실력은 조금 아쉬웠다. 너무 잘 부르는 것에 익숙하고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보는 내내 저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와 뭐가 다를까 싶었다.

혁명에 성공했지만 다시 왕정이 들어서고 또 혁명을 꿈꾸지만 왕정이 계속 이어지고 민중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하고 혁명은 실패하고...

꼭 우리를 보는 듯했다. 대선 후 봐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

죽음으로 맞서는 선각자들. 그들을 따르는 민중들. 그러나 고통스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끝내 외면하는 더 많은 민중들. 그래도 마지막 장면은 희망으로 끝난다. 민중이 일어서서 다같이 혁명을 노래 부르고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밝은 내일이 있는가?

영화를 보면 그럴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앞 정권을 심판하지 않았다. 다들 먹고 살만 한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던가? 모르겠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리 긴 세월인가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제일 많이 하고 있다.

부디 5년, 잘 견디기를...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 영화를 즐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

연주회, 뮤지컬, 연극, 무용... 모두가 즐기려면 비싸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는 그림을 안사도 되는 그림전시회,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 그리고 영화다. 쉽게 싸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영화인 것이다. 그것도 데이트를 겸하기도 하고 모임을 겸하기도 하고 시간도 두 시간 정도를 메꾸는... 보고나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즐기는... 영화를 많이 볼 일이다!



그와 약속한 날

권 용 욱

적어도 내가 아는 K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든 뭐든 글 나부랭이 같은 거 진득이 써 본 적 없는 위인이다. 그러던 그가 어젠 약간 길다란 얼굴을 소주 너 잔째에 들이밀며 뜬금없이 인생을 곱씹을 방법을 찾는다고 했다. 십대 시절, 교과서 밖 소설 몇 권으로 세상살이 또래보다 좀 더 아는 척 어깨 수그리고 다니던 그의 풍경이 생각났지만, 그런 빛바랜 사진 한 두 장쯤이야 그나 내나 아무 역사에도 박힌 사실이고 보면, K가 중년을 넘은 나이에 일기라도 쓸까 불쑥 말했을 땐, 바닥 소주가 쿵 목젓에 걸렸다. 안주 나르던 종업원 아이가 지나갔길 망정이지 그 아르바이트생이 들었으면 아마 트레이를 엮었을 지도 모른다. 7080 음악 탓인가. 그러고 보니 잔을 놓고 팔 뻗어 안주를 집는 그의 어깨 동작이 좀 서툴고, 윗머리 숲이 들성했다. 든 자린 몰라도 난 자린 알더라고 터럭이나 근력 빠진 것에는 매우 민감한 놈이로군.

허, 저만 그런가. 우리 또래면 준 것도 없이 억지로 잃어버린 듯, 애꿎은 술로 분전만회하는 미련 거지들이 아닌가. 세월로 시든 게 아니라, 탄엔 제 뜻대로 살다 모진 척 술을 마셔 심신을 망친 것이라 엉거주춤 변명하는 시절. 갑자기 일기 타령 할 만도 하다 싶었다. 그 짓이라도 하면 사우나실 모래시계 빠지듯 아래쪽만 거북하게 잡히고, 갈수록 비어가는 위쪽의 허전함을 조금이나 채울 지도 모르지. 일기라. 그래 좋지. 30년 40년 전 일들은 무심히 머릿속에 재현되건만 바로 어제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일쑤 아닌가. 누군가와 약속이나 한 일이면 어디 메모장에 적어 다음 날 출근길에 되새김질해야 할 판인데, 가만히 두면 언제 누구의 배경인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릴 저 창밖의 눈 내리는 경치, 여기 술집 안에 떠도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그림자보다 더 질기게 분별없이 감감해도 따라붙는 나의 험거운 자화상들, 일기장에 그려 두면 어느 미래 지금보다 더 빈 시절에 배부른 쌀독이 되지 않겠나. 내가 기억하진 못해도 일기장은 추억하겠지.

K의 말에 공감하느라 그 뒤 그의 말을 한참 듣지 못했다. 직장, 정치, 화장터, 자식, 연금, 내시경, 뭐 이런 날 말들만 창밖에 눈발 날리듯 희뜩희뜩 스쳐갈 뿐이었다. 담배 있나, 결국 이 소리에 다시 눈길을 되찾은 나는 나 팔뚝처럼 귀를 K의 입 가까이 대고 그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했다. 우리가 이래 가까이 앉아 둘이서만 서너 시간 함께 한 적은 참 오래 되었다. 한 동네에서 자라 대치까지 20여리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들길에 언뜻뵈듯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를 나누던 그 때 이후로, 우린 낯선 도시에서 대학을 넘기고 직장에 들고 결혼하고 그렇게 둥글어진 뒤 다시 만난 지는 겨우 두 달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간의 세월 간극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 좋았던 하회마을을 물돌이 모래사장에서 했던 말이 큰 부적처럼 우리 사이를 부패시키지 않았나보다.

꼭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는 듯 K의 말은 거름종이 없이 내 몸에 스며들고 있었다. 정작 글 나부랭이를



쓰고 싶다고 평생교육원의 무료 문학 강좌를 멋지게 수강하고 있는 내보다 K는 훨씬 더 적소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돈 안 드는 안주처럼 받아내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내가 그의 말을 적어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제 기분을 채울 것이지만, 정작 그의 말을 듣고만 있는 나는? 내가 그의 말을 주워 일기로 쓴다면, 그는 말을 해서 제 술기운을 달래고, 나는 글을 써 내 빈 시간을 메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말과 내 일기, 어떠냐. 마음대로 해라 했다. 대신 술값은 내가 내란다. 입만 산 선생이 무슨 돈이 많냐고. 게다가 아이 셋이 대학을 다닌다고 미리 업살을 세운다.

K가 어느 사립학교에 들어왔은 지 올해로 20년이란다. 서른이 넘어 시작한 일이 긴 세월 밥줄이 되어 이제 쉬자를 수 없는 사슬로 감겼다고. 신발을 사러가도 철력철력 티가 난다는 K는 담배 연기도 학생처럼 입 구석으로 피식 뿜어내었다. K의 동창들은, 나도 물론이거니와, 그가 교직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려낼 때, 분명 국어선생일 거라는 텐 입이 엇갈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영어선생이라니. 고등학교 시절, 영어 시간에 교과서 한 페이지로 한 학기 수업을 눈 뜬 풍유병 환자로 지내던 그가 허 짧은 영어 선생이라니. 요지경이라고 우리는 웃었었다. 그 말에 그도 웃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 뿐, 내력에 대한 자초지정은 맥주 한 모금과 땅콩 하나로 일소해버려 더 이상 알 순 없지만, 그가 그리 자신의 과목을 자랑스레 여기지 않음은 이해되었다. 네 성미에 참 오래 견뎌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아니, 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닐 진 몰라도, 더 이상 교직이 천직이라 떠별이고 싶진 않다. K의 저 말을 믿어야 하나. 직업선호도 첫 자리가 교직인데, 게다가 별난 재주도 없는 그가 저런 사치스런 말을 술김에 뱉는데, 쥐어박아야 하나.

그럭저럭 소주 3병을 비웠을 때, 나의 고막과 뇌의 기억 장치 사이에는 벌써 레테의 강이 넘실거렸다. K의 눈 꼬리도 더욱 늘어나 언저리에 주름이 쌓였다. 결국 우리 목소리가 술잔보다 높이 튀어 오르고 서로의 말 거리가 허청거리기 전의 그의 마지막 말만 기억난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에 만나잔다.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고 오늘처럼 일곱 시 쯤 이 집에서 보자고 한다. 자기가 교직을 그만둘 만한 구실을 한 달에 한 가지씩 챙겨와 나를 설득할 테니 알아서 하라 한다. 뭘 알아서 하라는 건지 몰라도 제 땀엔 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친구야, 세상이 어디 네 마음이터냐, 세상은 너나 나를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볼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세상과 꼭 떨어져야 할 사연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모가 나서 외통수라 그런 거야, 세상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사연이 더 많아, 안 그래, 예라 이 친구야, 지 못한 건 모르고, 끄웁.....

이번 달부터 교사이야기는 권용욱 선생님의 'K의 교단일기'가 시작됩니다. 채승영 전 지부장의 남편으로 부산참학 보배이십니다. 시인이기도 한 선생님의 교단이야기를 통해 진한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카톡이야기

편 국 자 (사무국장)



스마트한 세상 안으로 들어 온지 수개월 째 된다.

작은 폰을 가지고 다닌 지 22년 만에 노트만한 폰을 가지게 된 요즘이다.

12월 19일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목놓아 소리치며 대선후보를 향해 가슴을 내밀고 손을 내밀어 “사람이 먼저다” 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했던 결과가 무너지는 밤부터 나는 더 스마트한 노트에 빠져들었다.

집에선 TV에 뉴스도 라디오도 컴퓨터도 모두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안은 정말 재미가 넘친다.

하루 내내 음악 듣고 가로세로 단어풀이하고 라디오 듣고 명연설을 들었다.

일련의 신문 칼럼,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 없어도 웃고 즐거운 시간이 연속되다보니 지금도 뉴스들이 궁금하지가(?)않다. ^^

공교롭게도 스마트폰 안에서 카톡들이 뜬다.

내가 이렇게 귀 닫고 산다니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같은 행동을 하느냐는 지인들의 말들을 모아 읽고 가슴을 달래는 시간들이다.

스마트 폰에서 또 카톡이 뜬다.

사랑하고 후배가

“누나~ 나~오늘 촌지받았어요~”

라는 글과 한 묶음의 돈다발과 함께

「寸志

姜社張 貴下の 企業 倫理性을 준수하고 信義와 誠실한 자세로 工事を 마무리하여 그 感謝의 마음으로 작은 誠儀를 表함.

언제나 信賴 있는 기업이 되기 바랍. 柳 oo」

한문으로 성의 있게 적어진 단 두 줄의 글 속에 유사장님이란분의 진심이 담겨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값진 촌지가 아닐 수 없다.

후배는 작은 집들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를 꾸려 가는데 그동안 공사를 잘하고도 수많은 돈을 떼이기도 하여 법원에 가는 일도 생기고 힘겨운 날들도 적지 않았지만 묵묵히 늘 진심으로 일을 마무리 하는 보증수표 같은 후배다.

난 26년 동안의 학원생활 청산이유가 학원교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심리적인한계를 넘지 못해 천직이라 자부하던 직업을 과감히 돌아왔는데. ^^

이 후배는 진심은 통한다는 의지하나로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함에 저런 촌지를 받게 되었다.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나 이 후배에겐 너무나 의미 있는 촌지였음이라.

기간 내에 일마무리하려다 사고도 내고 생활비 제때 안준다고 아내에게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을 것이며 밤새워 일하느라 아이들도 뒷전이였음이 분명하다.

나는 댓글을 단다.

“사랑하는 근수 후배야 올 한 해 동안의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어찌 저 돈 한 다발에 다 사라지겠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다는 건 정말 나 자신에게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진실된 삶의 흔적을 보여줌이 아니겠나. 저 푸른 돈다발로(부럽당) 가족들을 위해 귀하게 쓰시게나.

나는 그대 같은 후배 있어 자랑스럽고 가슴이 뜨듯해진다. 멋진 새해에도 근수 후배의진가를 발휘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라고.

참 스마트한 세상이다.

또 카톡이 뜬다.

우리 참학 지부장님 고유의 어투로

“이번 총회 참석 하실 수 있어요? 꼭 오시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쉬이 댓글을 달지 못한다.

이번엔 지부장 선거도 있고 임원개편도 있는데 교육자치부장이란 명함만 받아놓고 딱 장사 하느라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 있었건만 ^^ 이젠 좀 시민단체일도 제대로 하고 나서야 하는데 생계에 부딪혀 이려고 있음이 한심스러워 한동안 댓글을 달지 못하고 조직부장 최은화 전화에 총회 때 딱 한 되 해서 이고 가리다 한다.

훈훈한(?) 분위기에 늦게 시작한 총회에서 제대로 지부장 임기 만료됨에 따라 지부장선출에 대해 선뜻 다른 분 추천도 못하는 난항을 겪는다.

부지부장님은 딱 장사하는 사람을 야단친다.(^^)

다시 광선희 지부장님이 유임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정권은 꼭 바꾸고 싶어 안달이면서 이 참학 단체장일은 정말 앞에 나서서 내가 하겠노라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나는 더 슬프게 한다.

부족한 역량도 답답하고 무엇보다 시간내기가 힘든 내 상황이, 그리고 내 사는게 우선이라는 이기심이 저 가슴속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음이.....

무거운 짐을 또 광선희 지부장님 어깨에 메어드리고 정말 미안함에 뒤돌아서서 나온다.

또 카톡이 뜬다.

우리 콕선희 지부장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 달라고 호소하던 목소리

총회 그 시간에 감정 그대로 담겨있는 말이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늘 감사해요”

더 움츠려 드는 가슴을 열어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드릴까 고민한다.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정말 죄송하다 할까....

또 내 식대로 간편하게 죄송하다는 카톡만 띄우고 그 시간을 모면한다.

그래도 머릿속에 참학 총회일이 떠나지 않는데.....

참학의 일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오지랖 넓게 또 걱정을 해본다.

내년 참학 총회는 또 어떻게 맞을까?

그때는 자신 있게 내가한번 해보겠다고 말 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이 될까하고.

카톡에 또 이모티콘을 띄운다.

힘내! ^^라는 만세 부르는 그림을!



사랑해! ^^ 라는 하트그림을!

한잔 어때! 소주병에 컵 있는 그림을!

그리고 혼자 건배! 한다.

소취하(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참취평(참학에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씨~익 웃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검찰은 부산교육감 임혜경의 ‘옷로비’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검찰은 임혜경 부산교육감의 뇌물수수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임 교육감의 ‘옷로비’에 대한 검찰의 보강수사 기간이 무려 6개월이란 긴 시간을 끌고 있다. 검찰이 교육감의 ‘옷로비’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희미해지길 기다렸다가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18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직급이 높은 검사들의 입을 통해 말이 여기 저기 옮겨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법적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의심한다.

부산 교육감의 금품비리로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부산 ‘B’고등학교 교감과 부장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해서 고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고 파렴치한 행위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주범인 교감과 교사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며 오히려 학부모를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뿐 아니라 학생을 폭행해서 고발당한 부산의 ‘ㄱ’교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용과정의 부정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교감 또한 매일 학교에 나가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에 교사로 있을 수 없는 이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학부모와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들을 학생들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임혜경 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보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때먹지 않은 원칙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임 교육감 본인이 비리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 교육감의 ‘옷로비’라는 뇌물수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18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미래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미래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180만원정도의 뇌물은 받아도 된다.’란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진 시민들로 가득하길 바라는가?

뇌물을 준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줬다’고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선물’이었다는 범죄 당사자의 변명과 ‘180만원은 적은 금액’이라는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을 핑계로 사건을 덮으려는가?

부산의 시민,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산 시민과 학부모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부산 검찰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엄정하게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바란다.

부산 검찰은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에 대한 죄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범법행위를 처벌하라. 검찰은 시민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20일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보건의료공약이라도 이행해야 하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는 그간 박근혜 당선자의 의료, 보건 공약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우리가 지적해 온 박근혜 당선자의 보건 의료 정책의 문제점 대해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 박근혜 당선자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이명박정부 하에 추진되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것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제 선거결과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문재인후보가 100만표 남짓으로 근소하게 졌을 뿐 더러, 박근혜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국민 대부분도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박 당선자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처럼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항쟁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위 후보와 무려 22.5%의 차이를 내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지만 당선후 3개월 만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8%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당선자가 내건 보건의료공약의 핵심인 ‘암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국가부담’은 약속대로 꼭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별적 보장성 강화 방침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많은 국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보건의료 공약을 가졌던 캠프의 한계를 반성하고 우선 약속한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바란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꼭 이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매우 강조한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 맞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셋째, 박근혜 당선자는 민생대통령이라는 구호를 강조했었다. 우리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대통령에 걸맞는 행보를 걷기를 바란다. 특히 박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민생의 핵심인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이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수도물 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 요금인상과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민영화 계획이

추진된다면 이런 당선자의 공약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자신의 약속인 민생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보건의료 공약의 한계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말한 ‘국민 정치’일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처럼 ‘불통’ 정부를 계승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변함없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새 정권하에서도 무상의료를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끝>

2012년 12월 2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약칭 : 무상의료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퉈),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대학등록금 인상을 내년 4.7% 못 넘는다 / 교과부, 상한선 제시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였고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7%가 된다. 따라서 내년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은 4.7%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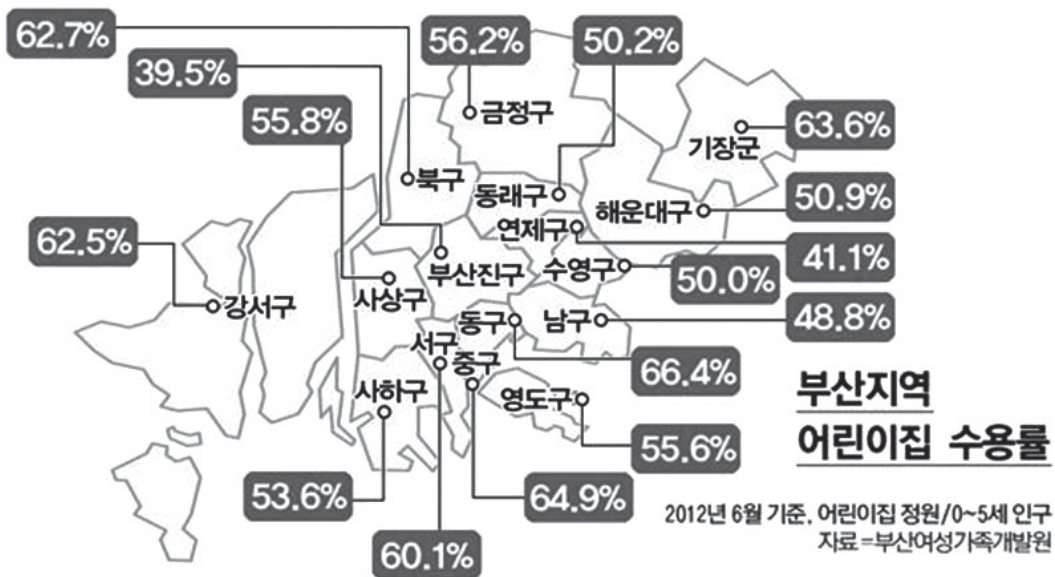
이 최대 인상을 어기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나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교과부는 반대로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도 우대한다.

2011년 등록금 최대 인상을 제도도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대학은 아직 없다.

부산일보/ 강승아 기자 /2012-12-21

아이 맡기러 옆 동네로... 부산의 엄마들 고달프다

“좋은 곳 보내려면 출산하자마자 대기 명단 올려야 할 판”



지난달 9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선을 보름 앞둔 4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당국이 13일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앞서 지난 9일 호봉제 예산 확보와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교육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이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중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호봉제 예산안과 교육공무직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잠정 유보했다.

당장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희망하고 있지만 11개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 핵심요구 사안인 호봉제 전환 및 처우 개선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가 나와야 진전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정이다.

실제로 학비노조는 지난달 24일 전국간부대회를 열고 선거투쟁에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김희정 부산지부장은 “현재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가 교육공무직 법안과 호봉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범야권 단일화를 통해 둘 중 한 명이 후보로 정해지면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구상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의 14일 총파업에 앞서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11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일보/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 2012-12-10

부산시교육청 시국선언 복직교사 재징계/ 감봉 3개월 의결 ... 전교조 반발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서권석(50)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재징계를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서 교사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징계(감봉 3개월)를 의결했으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의 재가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 교사는 시국선언 참가 직후인 지난 2009년 시교육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교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해 2년 9개월 만인 지난 10월 7일 복직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곧바로 재징계 의결에 나서 서 교사와 전교조 등의 반발을 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이 법원에서 징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재징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정법상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징계위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2012-12-24

앞으로 매점 · 자판기 운영에 약자 배려/ 부산시교육청 공공시설 대상

내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관리하는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 권한이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 · 독립유공자 가정,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계층에 우선 주어지게 된다. 시교육청은 20일 “부산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 ·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자로 공포돼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 관련 권고를 채택함에 따라 도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그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 조봉권 기자 / bgjoe@kookje.co.kr/ 2012-12-20

◆ 2012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 18대 회장 · 수석부회장 선거 실시
회장 박범이, 수석 부회장 최주영 당선
(투표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8차 정기총회 (전국총회)

1. 일시: 2013년 1월 26일(토) ~ 28일(일)
장소: 타코마리조트(전북 장수)
2. 프로그램(초안)
 - 1) 총회 기조 :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 2) 총회 슬로건 : 행복한 학부모 자유로운 아이들
 - 3) 총회 프로그램(초안)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3:30~14:00	도착, 접수, 숙소배정	
14:00~15:00	지부지회 인사 나누기(활동사진 PPT와 참가자 인사-3분)	
15:00~18:00	함께나누어요 “내가 생각하는 참학의 모습”	
18:00~19:00	저 식사	
19:00~22:00	28차 정기총회	1. 개회선언/2. 성원보고 3. 서기선출/4.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5. 감사보고/6. 안건처리 I 안건1) 2013년 신임 지부 · 지회장 인준 안건2) 201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7. 회장 · 수석부회장 이 · 취임식 8. 안건처리 II 안건3) 신임 임원 인준 안건4)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 안건5) 지회 해산 9. 회의록 낭독 10. 폐회 선언
	[신입회원] 영화관 ‘지상의 별처럼’ 또는 ‘마더쇼크’	
22:00~24:00	어울림마당 / 뒷풀이	
24:00~	취 침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8:00	기상	
08:00~09:00	아침식사	
09:00~11:30	지부지회 활동사례 발표	광주지부 - 학교참여 활동(학부모회) 박이선(고양) - 학부모회 활동 대안 모색 이남수(울산) - '세계학교' 교육을 통한 혁신교육 대구지부 -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활동 동북부지회 - 학부모교육을 통한 회원 확대+소모임 조직화 김미선(경남) - 학부모정책모니터단 활동
11:30~12:30	참여 소감 나누기	
12:30~13:30	점심식사	
13:30~	집으로	

※ 총회에 참석할 부산지부 대의원은 12월 18일 부산지부 총회에서 8명 선출되었습니다.
 총회에 건의할 사항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박선희, 김옥량, 채승영, 편국자, 장유성, 최은화, 김혜례, 임주연

〈 함께 할 새가족입니다! 〉

7월: 송언경

9월: 김계선, 김호정

11월: 손재광

12월: 최미경, 이경애, 정봉애





12월 이렇게 보냈어요

12월 3일	수입수산물 방사능 문제 세미나/ 시의회
12월 4일	임원회의 학습도시 세미나- 사상구청/ 김정숙
12월 5일	대선공부 무상급식 1인시위- 광선희 반핵대책위원회 일일 호프 후원
12월 6일	유권자네트워크 정책요구 기자회견-시 브리핑룸 예결산특별위원회 모니터-김정숙
12월 7일	인권 문화제
12월 10일	하반기평가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12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의 모니터, 새정치실현 부산연대결성 간담회
12월 12일	새정치 실현 부산연대 발족
12월 13일	식생활교육 부산네트워크 이사회
12월 14일	지부 감사
12월 18일	정기총회
12월 21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회
12월 27일	반핵대책위원회 평가회



12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류봉심, 채승영(2만), 박옥화(2만), 김정숙(2만), 김옥순(2만), 장선희(2만), 신영희, 곽선희, 박성미(2개월), 이행봉, 김기영, 조금제, 박은숙, 송경희, 홍동희, 박희옥, 김차름, 이일권, 공외정, 류정애, 김중철(2만), 윤내경(2만), 윤신옥, 김형선, 최경희(a), 조명숙(3만), 김정원, 문재경(5천), 윤연섭, 조석현, 노희정, 하주연, 맹일영, 전순실, 손진숙, 홍정희, 이남숙, 최경희(b), 이희주, 정윤숙, 최한, 이재희(5천), 고혜경, 신수자, 최승희(2개월), 김현준, 심미숙, 유은정, 김수영, 양윤자, 김경선, 심성보, 곽차섭, 박미순, 김경희(a), 박무준, 정수련, 황선애, 허운영, 지영경(5천), 김중찬, 황승미, 정동희, 차성환(5천, 3개월), 고창민, 황보덕, 오봉숙, 김동철, 유명희, 김석준, 곽태순, 장순옥, 이종명, 장지숙, 임석규, 이영주(2만), 신석열(2만), 김태만, 박유미, 송명희, 곽은순, 장유성, 신지원, 이승중, 민문식, 김익수, 이성하, 정재천, 김원재, 장동제, 이규남(2만), 임주연, 송기수, 송철동, 이선애, 김정애, 주우명, 권서용, 배종만, 백미영(5천), 문명숙, 김법기, 최은화, 서인석, 강순금(2만), 임창영, 김정열(5천), 이정형, 강정아, 손건태, 조원국, 남광우, 서권석, 김춘미, 이진희, 김영희(a), 백점단, 안중기, 최정홍, 황은옥(2만), 서정호(a), 문혜정, 장말선, 백성희, 서정호(b), 정찬호, 박경아, 정영재, 문영식, 우성만, 정명주, 왕병구(2만), 강은조, 서경애, 노기섭, 장현숙, 김영미(a), 김상현, 김현봉, 고내현, 노영민, 부지환, 이재홍, 김혜례, 강재성, 박덕수, 문인숙, 이병숙, 윤영근, 권인근, 이미옥(2개월), 김성희, 김재홍, 성인심, 배문주, 권영순, 임영선, 김경희(b), 박준건, 강아련, 김옥랑, 김성미, 이수진, 이혜영, 서석태, 이인경, 조정화, 주정현, 김영희(b), 편국자, 김영숙, 이정인, 최지선(2만), 최점순, 여진호, 조병준, 김동희, 이나훈, 이은정, 노귀전, 석은경, 남희선, 송부희, 함정화, 정미경, 정동주, 제진희, 최영순, 장은숙, 김은정, 강석희, 김경숙, 김영미(b), 윤송태, 김수진, 이금숙(5천), 노혜영, 정이덕, 김곤, 송언경, 최중수, 김호정, 김계선, 손재광

■ 12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6,479,617	중앙 부담금	527,760	4,006,507
	수첩대금	540,000	
회비수입 2,190,000	사무실 운영비	648,530	
	총회준비	97,300	
후원금 280,000	하이투자증권예금	5,000,000	
	소식지 발송비	97,820	
이자수입 1,783	소식지 인쇄비	270,000	
	상근자 급여	500,000	
기타수입 3,138,82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수첩발송비	125,520	
수입 합계 12,088,437	지출 합계	8,081,97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후원금은 백영현 10만원과 총회 때 최중수 10만, 박무준 5만원과 행운의 2달러, 채승영 3만원 입니다
- 기타수입은 교육청지원사업 구화학교 푸드아트테라피 진행 수익금 243,000원, 야무진 바자회 수익금 328,000원, 하이투자증권 통장 정리 2,567,820원입니다
- 수익사업 통장을 정리하여 사무실 이월금을 합해 500만원을 정기에치 시켰습니다. (하이투자증권)
- 총회에 후원해 주신 분: 배선임(떡), 편국자(떡), 시민생협(꿀), 밥, 나물등 일체(최은화), 전기스토틀(정찬호)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를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야마하피아노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